

‘뜨거운 질주’ KIA 김도영

두 자릿수 홈런 벌써 달성
부상없이 시즌 완주하고파



김도영은 김도영이다. KIA 타이거즈의 뜨거운 4월의 중심에는 김도영이 있었다. 김도영은 4월 25경기에 나와 104타수 40안타, 0.415의 타율을 기록했다. 10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날

린 김도영은 14도루도 기록하면서 KBO리그에 없던 ‘월간 10-10’이라는 새로운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25타점도 수확한 김도영은 “노력한 것들이 결과로 나온 것 같다. ‘월간 10-10’은 최초라는 점에서 기쁘지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도 나름 첫 기록이라는 점에서 좋게 생각하고 있다”며 “타점을 많이 한 게 의미 있다. 또 많은 관중 앞에서 진짜 재미있게 야구한 것 같다. 재미도 있고, 긴장감도 있었다”고 뜨거운 4월을 이야기했다.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김도영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KIA는 광주 동성고 김도영이 가지고 있는 차원이 다른 힘과 스피드에 주목하면서 타이거즈 마지막 1차 지명 선수로 그의 이름을 호명했다.

그리고 마음껏 펼 수 있는 판이 깔리자 김도영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도영은 “캠프 때 (부상 때문에) 연습을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왜 잘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도 노력한 만큼 나오는 것 같다. 또 작년 경험을 토대로 생각도 많이 하고 하니까 적응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상으로 훈련량은 부족했지만 지난 시즌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한 것들이 결과로 나오고 있다. ‘병살타’도 김도영이 신경 썼던 부분 중 하나다. 김도영의 타구 스피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땅볼 타구가 병살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시즌 김도영은 14개의 병살타를 기록했지만, 올 시즌 4월까지 김도영의 병살타는 ‘0’.

김도영은 “작년에 병살타로 스트레스도 받았고 팬들한테도 모진 소리도 들었다(웃음). 그래서 올해는 처음부터 신경 썼다. 1루에 주자 있으면 더 생각하고, 캠프 때부터

30-30 욕심없다... 승리에 집중

더 띄워서 치기도 했다”며 “노력한 게 결과로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빈틈없는 타격이 이어지면서 김도영은 지난 4월 24일 키움전에서는 ‘고의사구’로 걸어 나가기도 했다.

김도영은 “큰 것 노리고 들어갔었다. 큰 것 의식하면서 들어갔는데 아쉬우면서도 좋았다. 볼넷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좋기도 했다”고 이야기했다.

무시무시한 타구 스피드로 담장을 넘기며 힘을 과시하고 있는 김도영은 지난 28일 LG전에서는 또 다른 무기도 보여줬다.

이날 김도영은 2점 차로 뒤지고 있던 7회 무사 1-2루에서 기습 번트로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경기장을 뒤집었다. 김도영의 빠른 발에 당황한 상대의 실수가 나오면서 주도권을 전 KIA는 연이은 상대의 실수로 10-7 재역전극을 펼쳤다.

승리를 부른 이 장면은 김도영에게도 ‘영감’을 줬다. 김도영은 “사인이 나서 됐는데 해보니까 시도해 볼 만한 것 같다. 확실히 그런 플레이를 하니까 분위기도 사는 것 같다. 그냥 평범한 안타를 쳤다면 그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확실히 뛰면서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를 하니까 더 좋은 것 같다. 앞으로도 기습 번트 많이 대려고 한다. 잊고 있었다”며 “상대 수비를 앞으로 당겨놓고 치면 좋은 결과도 나올 것 같고 자주 시도해보겠다. 상대가 변화구로 내 약점을 찾았다고 하는데 나도 나만의 것을 찾았다. 그렇게 상대 견제에서 빠져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뜨거운 4월을 보냈지만 앞으로의 시즌이 더 중요하다. 김도영의 활약에 상대도 더 집요하게 분석을 하면서 대처하고 있고, 타격 사이클도 있다. 김도영은 “공이 수박만 하게 보였는데 공이 줄어들었다. 뜨거웠던 감이 끝이 났다(웃음). 그래도 올해는 타격 기록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좋은 감이 오래 이어졌던 점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상대가 많이 분석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게 느껴진다. 투수는 자기 것의 준비를 할 것이고 나고 준비했던 것 똑같이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것은 없는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남은 시즌 김도영의 목표는 ‘승리’다. 김도영은 “주변에서 30-30, 40-40 이야기들을 하시는 데 그런 것에 욕심은 하나도 없다. 벌써 목표를 잃어버렸다. 두 자릿수 홈런 치는 게 목표였다. 솔로 홈런이 많았다. 그것은 아쉬웠다”며 “다른 목표 없이 다치지 않으면 좋겠다. 팀이 많이 이기는 데 신경 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도영은 “주변에서 30-30, 40-40 이야기들을 하시는 데 그런 것에 욕심은 하나도 없다. 벌써 목표를 잃어버렸다. 두 자릿수 홈런 치는 게 목표였다. 솔로 홈런이 많았다. 그것은 아쉬웠다”며 “다른 목표 없이 다치지 않으면 좋겠다. 팀이 많이 이기는 데 신경 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도영은 “주변에서 30-30, 40-40 이야기들을 하시는 데 그런 것에 욕심은 하나도 없다. 벌써 목표를 잃어버렸다. 두 자릿수 홈런 치는 게 목표였다. 솔로 홈런이 많았다. 그것은 아쉬웠다”며 “다른 목표 없이 다치지 않으면 좋겠다. 팀이 많이 이기는 데 신경 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페퍼스, 2쿼터 최대어 장위 지명

197cm 큰 키...공·수 시너지 기대
7일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 참가
“야스민 같은 공격수 데려오겠다”

2024 KOVO 여자부 아시아쿼터 트라이아웃에서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결정됐다.

페퍼스는 1일 제주 현호체육관에서 열린 2024 KOVO 여자부 아시아쿼터 드래프트에서 1순위 지명권을 얻어 중국 국적의 미들블로커 장위(29·사진원쪽)를 지명했다.

197cm의 큰 키를 자랑하는 장위는 사전 조사에서 여러 구단의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페퍼스는 장위의 영입으로 높은 타점을 활용해 수비력을 보완하고 공격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페퍼스 관계자는 “아시아쿼터를 통해 취약했던 미들블로커 포지션 보강을 계획했는데 1순위 지명권을 행사하게 돼 한시름 났다. 장위가 팀에서 잘 훈련해 좋은 시너지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곧 있을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에서는 야스민 같은 공격수를 데려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아시아쿼터 지명 행사는 순위에 따른 차등 확률 추정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추첨에서 직전 시즌 하위 세 팀(페퍼스, 한국도로공사, IBK)이 역순으로 구슬 30개, 25개, 20개를 추첨기에 넣어 지명순서를 먼저 배정받았다. 이어 상위 네 팀(GS칼텍스, 정관장, 현대건설, 흥국생명)은 구슬 20개씩 넣어 2차 추첨을 실시했다.

2순위 지명권을 얻은 IBK기업은행은 지난 시즌 함께 했던 세터 폰폰 게드파르드(30·태국)의 트라이아웃 신청 철회로 동일 포지션인 천선통(30·중국)을 영입했다.

3순위 한국도로공사는 아웃사이드허터 유니에스카 로블레스 바티스타(31·카자흐스탄)를 지명



했다. 중국생명은 4순위로 미들블로커 황 루이레이(28·중국)를 선택했다.

5순위 현대건설은 23-24시즌 정규리그 1위와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합작한 아웃사이드허터 위파위 시통(25·태국)과, 6순위 정관장은 아포짓허터 메가워터 피터위(25·인도네시아)와 재계약 체결했다.

7순위 GS칼텍스는 오스트레일리아·독일 이중국적의 아웃사이드허터 스테파니 와일러(28)를 선발했다. 2024-2025시즌 활약을 앞둔 아시아쿼터 선수는 연봉으로 신규 12만 달러, 재계약 15만 달러를 받는다.

한편 페퍼스는 오는 7일부터 3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2024 KOVO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에 참가한다. /서민경 기자 minky@

임성재, 데이·스피스와 ‘티오포’

2일 더 CJ컵 바이런넬슨 개막

임성재(사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더 CJ컵 바이런넬슨(총상금 950만 달러)에서 제이슨 데이(호주), 조던 스피스(미국)와 함께 1, 2라운드를 치른다.

임성재와 데이, 스피스 조는 한국 시간으로 2일 밤 9시 45분 10분 홀에서 대회 첫날 경기를 시작한다.

더 CJ컵 바이런넬슨은 2일부터 나흘간 미국 텍사스주 매카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파71·7414야드)에서 펼쳐진다.

임성재는 대회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CJ가 후원하는 대표 선수로, 데이는 2010년과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다. 또 스피스는 대회가 열리는 텍사스주 출신의 톱랭커다.

이번 대회 출전 선수 가운데 세계 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가 스피스(20위), 그다음이 데이(22위)다.

임성재는 4월 28일 경기도 여주에서 끝난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 대회 2연패를 달성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했다.

서브 후원사인 우리금융그룹 주최 대회에 이어 2주 연속 스폰서가 여는 대회 우승에 도전하는 임성재는 “요즘 경기력이 다시 올라오면서 모든 감이 안정적으로 살아난 것 같다”며 “오늘 9개 홀을 돌았는데 페어웨이가 넓고 위험 요소도 크게 없어서 정확



하게만 치면 매 홀 버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2020년 3월 혼다 클래식, 2021년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오픈에서 우승한 임성재는 “메인 스폰서 대회인 만큼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을 다 보여주고자 한다”며 “한국 선수들이 잘하고 우승한 대회여서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J그룹이 올해부터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이 대회는 2013년 배상문, 2019년 강성훈, 2021년과 2022년 이경훈 등 한국 선수들이 정상에 올랐다.

또 지난해에는 데이가 우승했고, 김시우가 1타차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경훈과 김시우는 애덤 스콧(호주)과 함께 3일 오전 2시 55분에 1번 홀을 출발한다. /연합뉴스

LIV 골프 올 최종전 무대는 미국 시카고

9월 13일 개막...시즌 최고 선수 결정

LIV 골프의 올해 마지막 개인전 대회 무대는 미국 시카고로 정해졌다.

LIV 골프는 오는 9월 13일부터 사흘 동안 치르기로 한 시즌 13번째 대회 장소로 미국 시카고의 볼링브룩 골프클럽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회는 개인전 최종전이다. 이 대회에서 LIV 골프 이번 시즌 최고 선수가 결정된다. 또 개인 시즌 순위에 따라 내년 출전 자격 순번도 정한다.

시즌 최종전인 팀 챔피언십의 시드 순위도 결판

난다. 팀 챔피언십 일정과 장소는 미정이다.

시카고 도심에서 가까운 볼링브룩 골프클럽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를 치른 적은 없지만 PGA 투어 허부투어인 캐나다투어 대회를 2021년에 개최한 적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캐나다투어는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선수를 위해 미국에서 대회를 맞차려 열었다. /연합뉴스



4월 뜨거운 타격으로 KBO ‘월간 10-10’의 첫 주인공이 된 KIA 김도영이 꾸준함으로 팀 승리를 위해 달린다.

〈KIA 타이거즈 제공〉